

## 신기술 신제품 인증효과 확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신기술 인증제품(NEP)과 친환경 인증제품(GR) 등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먼저 이들 제품의 적극 구매에 나설 수 있는 구매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신기술실용화 및 인증제품 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 해부터는 새 정부 출범 후 실시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그동안 종전의 과기부, 정통부에서 운용하던 신기술(NET) 및 IT 분야 신제품 인증업무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 이관되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인증업무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식경제부 차관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의 주력산업은 모두 이미 세계 5위 이내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세계가 놀랄만한 이러한 성과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끊임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해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시키고 실용화에 성공한 신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 다각적인 판로를 지원하는 등 동반성장, 상생협력에 의한 인증제품의 구매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부품소재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 첨단제품 생산의 출발점이며, 국가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이 분야에서의 신기술 개발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술 개발의 실용화를 통한 수입대체와 수출 증대는 물론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기술, 친환경인증제품의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능동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신기술 및 신기술·친환경제품을 적극 발굴하되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제품에만 인증을 줌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한편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인증제품 구매 확산과 해외 판로지원 등의 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제품(NEP) 인증에 있어, '07년 인증기업(470업체) 총매출은 전년대비 4.8%(47,436억)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07년 인증제품

의 총매출은 전년대비 16.1%(2,701억) 증가하고, 내수(수입대체) 20.5%, 수출도 5.9% 증가하여 인증이 매출신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기업 매출현황>**

증감	구분	인증제품 총 매출	내수(수입대체)	수출	비고
	'06년	14,071	9,369	4,702	
	'07년	16,772	11,778	4,994	
증감율(%)		16.1(▲2,701)	20.5(▲2,409)	5.9(▲292)	

공공기관이 구매한 금액은 전년대비 2배 증가하여 점차 공공 구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공공구매 금액 1,960 억원으로 인증제품 총 매출대비 11.7%가 증가했다.

**<인증기업 매출현황>**

년도	항목	수혜기업 수	구매회 수	공공구매총액(억원)	비율(%)
	'06	128	1722	967	6.9
	'07	198	2,648	1,960	11.7
증감율(%)		54.7	53.8	102.7	-

신기술(NET)인증에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촉진을 위해 국내 최초 신기술 및 대체기술을 '06년부터 '08년 현재까지 260개 신기술(NET)로 인증했다.

- \* 신청/인증 : '06년 314건/30건, '07년 387건 /110건, '08년 347건/70건.
- \* 인증 신기술(NET)의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건수 : 2,142건('06~'08년).

우수 신기술(NET)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했다. 신기술인증의 효과는 기업의 이미지 향상이 31.0%로 가장 높고 기술확보 28.4%, 매출의 증대가 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기술(NET)인증 효과 ('08년 기준)>**

(단위 : %)

구분	매출증대	기술확보	이미지향상	투자유치	지원제도활용대	기술개발협약유여	연구인력확보	계
비율	14.8	28.4	31.0	3.2	12.9	8.4	1.3	100.0

우수재활용인증(GR)에 있어, 재활용업체 중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를 분석한 결과 GR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전체의 87%로 거의 대부분이 GR인증업체로 나타났다.

**<GR인증업체와 일반재활용업체의 매출비교>**



한편, 부품소재산업의 실질적 구조고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제2차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 공청회가 11월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부품소재산업진흥원과 산업연구원을 통해 지난 8개월간 진행된 「제2차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MCT-2012)」의 연구성과 점검 및 보완을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글로벌부품소재산업의 트렌드가 변화해 가는 시점에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인 부품소재산업의 발전방안을 점검하고 전략을 재정립하는데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부품소재산업의 실질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정만태 박사는 그간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통해 부품소재산업은 전산업의 성장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은 2007년 현재 생산 420조원, 수출 1,682억불, 무역수지 364억불을 달성하였고, '01년 제조업 대비 생산비중이 39.3%에서 42.4%로 높아지면서, 부품소재산업이 제조업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01년 이후 부품소재분야의 무역 흑자폭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부품소재 무역 흑자규모가 전산업 무역 흑자규모의 2배 이상 상회한다고 분석됐다.

\* 부품소재 무역흑자 (억불): ('01)27→('02)29→('03)62→('04)152→('05)227→('06)347→('07)364.

\* 전산업 대비 부품소재 무역흑자 비중 : ('06)216.0%→('07)248.3%.

그러나, 무역흑자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對日 무역 적자의 지속 및 대중국 흑자의 감소 등 1차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취약부분을 제시하고, 부족부분에 대한 보완과 부품소재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전략수립에 주력했음이 강조됐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차 기본계획안에서는 「2012년 부품소재산업의 실질적 구조고도화」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7대 핵심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했다.

\* 7대 핵심과제 · 경쟁기반강화

- ① 미래 유망 100대 부품소재 핵심기술 확보
- ② 미래시장 창출형 핵심소재 70개 개발
- ③ 부품소재 중핵기업 400개사 육성 · 혁신 인프라 구축

- ④ 수요자 맞춤형 신뢰성 사업 추진
- ⑤ 부품소재 전문인력 5만명 육성
- ⑥ 지식정보 서비스체계 선진화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⑦ 부품소재분야 외국인 투자 내실화 및 교역규모 확대

이 계획에는 2007년 현재 부품소재 분야의 364억불 무역수지 흑자를 목표연도인 2012년에는 약 920억불 규모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계획과 함께, 생산대비 수출비중은 37.3%까지 늘리고('06년 기준 36.5%), 내수대비 수입비중은 28.2%까지 낮추겠다('06년 기준 30.5%)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등 여타 정책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기술개발의 전략성을 강화해야 하며, 장기성과를 지향하는 부품소재 기술에도 균형있는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자들은 미·일 등 선진국의 부품소재발전계획을 예로 들며, 개방형기술개발전략과 전문인력양성 전략에 많은 벤치마킹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 글로벌경쟁력 확보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소재분야 별도 발전전략의 필요성과 함께, 수요기업-생산기업-연구자-정부의 상시 협력모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향후 중국의 정책이 내수진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하면서, 중국 부품소재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식경제부는 공청회에서 제시·수렴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금년 말까지 「제2차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